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찬양해요

찬송가 43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에스겔 10:17-19

- 17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고,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치솟았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 18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 19 그룹들이 내가 보는 데서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 가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룹들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나 동행하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당시 이스라엘에는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시는 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상징으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지 생각해 보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해
보기

1.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떠나고 계십니까(18절)?

▶ 주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

2.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18절)?

▶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

3.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떠나신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